



고병오

대금과 테이프 음악에 의한 “컴퓨터 사막”

“The desert of computer” for Daegum and tape music (2010)

(대금: 성취경)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건조한 모래바람, 서서히 움직이는 모래언덕과 무엇이든 삼킬 듯 한 모래폭풍. ‘사막’은 무미건조한 기계-컴퓨터에 비유된다. 이 작품은 여러 합성음으로 만들어진 음군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모래언덕처럼 이동하며 새로운 음색으로 전이되고 생성된다. 거대한 모래바람과 모래언덕 위를 대금선율이 무거운 발을 디딘다.



김가희

바람과 플룻 (2013)

(플룻: 손혜진)

바람과 플룻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소리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마치 바람과 플룻 두 개의 악기가 연주하는 듯한 효과를 생각하고 쓴 곡이다. 플룻의 연주, 그 아래에서 바람이 속도와 세기를 다르게 하여 등장한다.

장동인

Pulsation (2013)

(무용: 이세승)

새들의 날개짓에도, 넘실대는 파도속에도, 넓은들판 위에도, 심지어 우리들의 숨결 속에도 바람이 깃들어 있다. 바람은 곧 혈관을 타고 심장속으로 파고들어 맥박을 얻고, 한줄기 바람이 모여 거대한 폭풍이 되어 소리 높여 포효하며 끊임없이 요동친다. 폭풍의 심장을 지니게 된 내 육신은 갈갈이 찢긴 채 바람에 실려 온 세상에 퍼진다.



조진욱, 고병량

Interlude 2 for wind recorder (2013)

연주장 외부(입진각, 바람의 언덕)에서 작동하는 녹풍기로부터 전달되는 바람 세기의 절대값과 변화값을 이용하여 짧은 음향들이 생성, 소멸되어 간주곡 역할을 한다. 외부의 녹풍기 제어자는 비교적 일관된 패턴을 갖는 바람의 흐름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데이터를 변질시키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현대 IT세계에서의 조력자 혹은 침입자를 의미한다.

※ 본 곡은 공연 전반의 배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크레딧

연구책임교수	김수정
공동연구교수	이돈응
공동연구교수	방현우
음향감독, 무대감독	고병오
영상 및 그래픽디자인	배민기
영상 및 프로그래밍	손우성
녹풍기 시스템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 김호영, 양수인, 허윤실, 방현우
현장 중계 소프트웨어	송준봉, 윤기홍
추가 하드웨어	이병주, 윤경원
녹풍기 기술지원	백동엽, 조성민, 정정만
음악 기술지원	고병량
로컬 오퍼레이터	김태희, 조진욱

